



중화선동 통장협의회, 새봄맞이 일제대청소

전주시 중화선동(동장 유은례)은 지난 25일 통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 개최 후 관내 청소 취약지역에서 새봄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5개 조로 나누어 관내 한두평 공원, 선너머공원, 주민센터 앞, 스타벅스 앞, 강령교회 앞 등 불법투기 상습지역에서 적치된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했다.

변은숙 중화선동 통장협의회장은 "새봄을 맞아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방문객들에게는 깨끗한 중화선동의 첫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살기 좋은 중화선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뇌병변장애인 권익 향상 앞장

국민연금, 뇌병변장애인 장애인등록 지원 업무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5일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회장 이원교)와 미등록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인등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외·학대 피해 등의 사유로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뇌병변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인권 증진 협력 방안 모색 등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장애심사(Fast track)를 도입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 심사 불편을 줄이고 3배 빠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 서비스 제공과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각종 심사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8명의 사회적 소외·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등록·지원



함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발굴기관 지속적 확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남원시, 울칠·같이 교육 수강생 모집

남원시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2 남원시 울칠·같이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4년부터 목공예 신규 인력 양성 및 전통기술의 전승·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울칠·같이교육은 도 무형문화재 울칠장 박강용 선생(울칠 고급반), 대한예술원 인 이진무 선생(같이 초·중급반) 등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올해 교육은 2개분야(울칠, 같이분야) 5개과정(울칠 초급·중급·고급, 같이 초급·중급)으로 구성됐으며, 5월 9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가방틀, 울칠공예교육센터 등에서 매주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정원은 각 과정별 5~12명으로, 초급반은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중급반 이상은 이진단계 수료자 또는 동등자격 보유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재료비는 수강생 실비 부담), 교육신청 희망자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52)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 예미담치과대운산업, 성금·품기탁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5일 예미담치과(대표 오광민·장민재)가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오광민 원장은 "전달된 성금이 소외계층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민재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운산업(대표 이권규)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탁한 물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생장갑 150박스(1.6401원 상당)를 전달했다.

앞서 대운산업은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나윤동에 일회용 위생장갑을 기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어린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박천수 원장, 전북대 후배 교육환경 위해 1억원 기부

전주에서 박천수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천수 원장(의대 8회 동문)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 23일 박 원장을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감사를 전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전북대 의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1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 해오고 있다.

박천수 원장은 "선배로서 의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난해 첫 삼을 쓴 의생명융합관 개관과 인재양성을 위한 임상실기센터, 기타 교육시설 확충 등에 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박천수 원장은 1984년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레이저 최추수술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관절경 수술 및 무릎 인공 관절, 어깨 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천 회 이상의 수술 경험과 족주치와반증 1천500회 이상 수술 경험을 갖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덕과면, 인구 늘리기 간담회 개최

남원시 덕과면(면장 안동준)은 지난 25일 면장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유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덕과면의 인구변동 현황 및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숨은 인구찾기 위한 기관·단체장의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서를 진행했다.

주요 협조사항은 기관·단체장들이 단체별로 덕과면 주소 옮기기를 실천하고, 실거주 미전입자 주소이전 독려 등으로 각 기관 단체에서 앞장서 한마음 한뜻으로 덕과면 인구 문제 지속적 관심과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안동준 덕과면장은 "귀농귀촌 지원 등 홍보 서한문 발송,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알선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체육회,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성금 전달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쟁 없는 평화'를 기원하며,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았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며 "스포츠를 통해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올림픽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체육인들은 비극적인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복학생장학금 4850만원 전달

전주대학교는 교수와 직원이 매일 기부해 적립한 복학생 장학금으로 복학생 57명에 4,8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복학생장학금은 복학 예정 학생이 복학 시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신설된 장학금으로, 장학금 재원은 전주대 교수와 직원이 매일 일정 금액을 모아 마련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지난 1월 3~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단과대학 추천과 성적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57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날 열린 수여식은 단과대학 대표로 선발된 장학생 8명과, 교수 대표로 이상행 학생취업처장 직원 대표로 이덕수 총무처장이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이상행 처장은 "이 장학금이 학업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학을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